



사회=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기노환 <전 광주교장단체 회장>



윤봉근 <광주시의원>



강경환 <광주레슬링협회장>



박윤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박준화 <영광농협 조합장>



정기섭 <고운시타이어 회장>



서정성 <광주시의원>



정현애 <광주시의원>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세미나-광주·전남 희망 찾기

기업 유치·교육 명예회복 ... 지역 리더들이 앞장서야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세미나가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리더로 활약 중인 원우들이 ‘광주·전남 희망 찾기’를 주제로 수준 높은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세미나’에서 원우들이 ‘광주·전남 희망발전’을 주제로 지역발전·교육·문화·농업·여성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다. 광주·전남지역의 리더들이 힘을 모아 15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한 산업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이 안정적이고 즐겁게 살아가고 수 있도록 자치단체·대학·의료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해 정주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자녀의 54%가 유아·초등학생일 정도로 젊다.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명품 교육도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노사화합 분위기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노환 전 광주시교장단체의 회장=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김용 세계은행 총재·괴거여왕 김연아 등 세계적 인물들의 성공에는 자신의 노력은 물론 전통적 한국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교육이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교육계 내부의 이념적 갈등과 반목이 원인이다. 진보는 보수든 보질적인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의 제1원리는 ‘상찬’이다. 상찬의 모델은 2002월드컵 당시 붉은악마다. 언론 등에서 붉은악마의 선행장면을 클로즈업하면서 국민들은 질서의식·애국심을 회복했다. 이는 축구 4강이라는 성과보다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자긍심을 갖게 했다. 이 같은 상찬의 원리를 활용해 교육의 명예회복과 교육력을 향상해야 한다.

▲윤봉근 광주시의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인적 인간상이다. ‘좋은 교육’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다. 교단에는 진보·보수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수의 전통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더욱 혁신하는 진보의 가치관이 조화돼야 한다. 교육행정당국은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지금 광주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론·시민·학부모·교직원들의 비판과 대안을 겸허히 수용하는 진정한 소통,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의 리더십, 교육의 극대화다.

▲강경환 광주시레슬링협회 회장=광주에서 가장 기초학력 수준이 낮고 학교폭력 등 문제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 1년이면 1학년씩 전학 가는 심각한 중학교에서 교장을 지냈다. 부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고 문제아를 설득해 운동을 하게 한 것이다. 레슬링·하키·탁구·골프·역도 선수단을 창단해 공부에 흥미없

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시켰다. 운동과 특기가 존중된 교육을 한 결과, 27%에 달했던 기초학력부진자가 4.2%로 뚝 떨어졌다. 학교폭력도 현저히 줄어 자퇴하는 학생이 줄고, 급기가 인근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학교로 바뀌었다. 이 모두가 운동을 통한 체력 향상과 정신건강 교육에 있었다.

▲박윤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최근 광주세계아리랑축전에서 주제공연인 창작뮤지컬 ‘빛갈아리랑’을 선보였다. 완성도 높은 공연에 관객과 언론은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해도 손색이 없다고 호평했다. 좀 더 다듬어 내년 5월 서울 공연과 광주 영를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문화수도 광주의 자부심을 갖게 한 것이 더욱 값있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말이 많다. 첫

째는 법인화 문제다. 만약 법인화가 되면 예산을 감당 못해 애물단지가 된다. 둘째는 광주의 정체성, 광주의 정서가 담긴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광주의 정체성·정서가 담긴 ‘빛갈아리랑’ 같은 작품을 무대에 많이 올려야 한다.

▲박준화 영광농협 조합장=FTA시대 농업·농촌 사랑은 생존의 문제다. 전남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농업이다. 또 도시·농촌 간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거래 등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혀야 유통 비용을 줄여 마진을 늘릴 수 있다. 신선 농산물 공급으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특히 전남 농업만의 장점을 살린 특성과 추진과 수출 확대도 중요하다. 전남이 보유한 다양한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리 농산

물 소비도 늘려야 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후계 영농 인력의 유치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기섭 고운시타이어 회장=그동안 주택정책이 대규모 택지개발이었다면 이젠 도시재생으로 가야 한다. 광주시도 도시재생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다행이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규모로 이뤄지다 보니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사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보완해 중소 규모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5000㎡~1만㎡의 소규모와 1만㎡~2만㎡의 중규모 사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지역주민과 중소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규모가 아닌 중소규모의 개발 정책을 펴야 한다.

▲서정성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정치를 하면서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책을 반영할 지, 말 것인가는 정치인과 리더들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자살 정책을 보자.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8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연간 1만5000여 명이 풀이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그렇지만 자살예방 정책은 너무 빈약하다. 만약 전염병으로 1만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면 방치하겠는가. 시의원이 돼 처음 만든 조례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조례’였다. 어떤 문제든 정책으로 입안되는 게 중요하다. 정책이 반영되면 사회가 바뀐다.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정현애 광주시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장=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여성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도시는 미래가 밝다. 광주시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가 행복해진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은 더욱 그렇다. 하수관이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도 기사 부르기가 무섭다고 한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문자나 폭행·살인도 문제지만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안이 떨어야 되겠는가. 조사 결과, 여성들은 ‘안전’을 가장 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대표성 제고 등을 꼽는다.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은 프랑스 지방의회처럼 남녀를 반반 선출하는 ‘남녀 동수법’을 도입하는 거다. 리더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교육, 소통·통합 리더십 가장 필요
운동·특기 병행교육, 학폭 현저히 줄어

문화전당 법인화 땀 예산 감당 못해
FTA시대 전남농업 친환경 특화될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송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당 사무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45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5천
-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시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45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북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에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 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